

## [QT 세미나]

### QT,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포기하라

이상규 목사 / 페이지수:2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란 본시 마음에 있는 것을 표출하게 마련이다.(눅 6:45)

성경은 인간 사고의 근원지인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선과 악'이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선과 악'이란, 극개념을 사용하여 인간가치관의 총체를 표현하는 일종의 제유법(merism)이다. 이러한 말의 원리를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눅 6:45)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더욱 그러하실 것이 아닌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특징은 '말씀하심'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피조계에 대하여 매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4, 10, 12, 18, 21, 25, 31)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창 1:3, 6, 9, 11, 14, 20, 22, 24, 26, 29)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선'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하신대로 되어진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피조계를 맡아 다스리게 할 사람을 에덴동산으로 이끄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최초의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창 2:9, 17)였던 것이다.

요컨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하나님 나라를 맡아 다스림에 있어서 오직 그리고 주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나쁨'의 기준의 말하며 통치하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아침에 눈뜨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는대로 선과 악'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가득히 새기며 묵상하는 일일 것이다. (참고, 신 30:14~16 ; 수 1:8, 시 1:2). 우리는 아담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했던 한 날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창 3:17)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QT란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악의 기준으로 말하며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늘 시온 보좌로부터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가득 채워 묵상하며 적용하는 과정인 것이다.

창 1~3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좋다’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선악”의 “선”과 같은 단어인 “토브”이다.

\* 출처 : QT 신문